

주님의 회복 안의 네 가지 큰 기둥

(목요일—오전 2부 집회)

메시지 2

첫 번째 큰 기둥—진리

(1)

하나를 위해 진리로 기록하게 되어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감

성경: 요 17:14-24

I. 진리는 성경의 사실들 위에 빛을 비추고, 이 사실들에 대한 하늘에 속한 영적인 이상을 우리 존재 안으로 방영해 주는 신성한 빛이다.

- A. 신약에서 진리는 이러한 종류의 ‘하늘에 속한 텔레비전 영상’을 의미한다.
- B. 주님은 빛과 진리와 말씀이시다. 말씀은 또한 진리로서 빛을 내는데, 이것은 말씀 안에 빛이 있기 때문이다—요 8:12, 14:6, 17:17, 시 119:105.
- C. 진리는 빛의 비춤, 곧 빛의 표현이다. 다시 말하면 진리는 표현된 빛이다.
- D. 그 영은 진리의 영, 실재의 영이라 불리신다(요 14:17). 실재의 영은 영적인 것들을 우리 존재 안으로 방영해 주는 ‘하늘에 속한 전기’이시다.
- E. 진리의 영, 곧 실재의 영께서 성경에 기록되고 담겨진 영적인 사실들 위에 빛을 비추실 때, 우리는 진리, 곧 실재를 받는다.
- F. 그 영의 빛 비춤 없이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는 교리나 ‘뉴스 보도’를 들을 뿐, 진리나 실재나 이상은 얻지 못한다.
- G. 모든 신성한 사실들은 말씀 안에 담겨 있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다. 그 영께서 말씀 위에 비추실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텔레비전 영상’을 갖는다. 빛은 말씀 안에 있는 사실들 위에 비추고,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을 우리 존재 안으로 전달해 주며,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된다—비교 엠 1:17-18상.

II. 진리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 A. 진리는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여, 우리를 부정적인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한다—요 8:32, 36.
- B. 진리는 우리를 위치적으로, 그리고 기질적으로 기록하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요소로 적신다—요 17:17, 엠 5:26.

III.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실재화되고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되고 주입되시는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기록하게 하는 진리이시다.

- A.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여 내적으로 공허함을 느낄 때, 우리 자신을 열고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잠시 말씀을 읽고 나면 우리 속에 있는 무언가가 솟아오르고,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느낀다.
- B.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취함으로써 주님께 속한 무언가가 우리 속에 넣어진다. 이것이 살아 계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분별시키시는 삼일 하나님의 실재이다.
- C. 매일 아침 우리는 살아 있는 말씀을 접촉하여 신성한 실재이신 삼일 하나님을 우리 존재 안으로 주입 받을 수 있다.

1. 이러한 하나님의 요소의 옮겨 부음이 우리를 성질과 시기와 미움과 교만 같은 부정적인 것들에서 자유롭게 한다. 이것은 우리를 온갖 거짓된 것에서 자유롭게 하고, 우리는 참된 해방, 참된 자유를 얻는다.
 2.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동안 또한 위치적으로뿐 아니라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되고 분별되고 하나님께 성별된다. 바로 그분의 본질이 우리 안에 넣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
- D. 매일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말씀 앞에 나와야 한다. 우리는 매일 아침 말씀 앞에 나와야 하며, 가능하다면 다른 때에도 이렇게 해야 한다.
- E. 말씀이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살아 계신 영과 연합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로 거룩하게 된다.
- F.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접촉함으로써 하나님은 매일 우리 안에 더해지신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으로 침투되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
- G.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살아 있는 말씀과 적용된 말씀을 통해 살아 계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입되시고 넣어지시는 것이다.

IV. 진리의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분열의 요인들을 처리하여 하나를 가져온다. 진리는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함은 하나를 산출한다—요 17:14-24.

- A. 아들이신 주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그 영은 진리의 영이시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요 1:14, 17, 14:6, 17, 17:17, 요일 5:6.
1. 아버지는 아들 안에 체현되시고, 아들은 진리의 영으로 실재화되시며, 그 영은 말씀과 하나이다—요 6:63, 엡 6:17.
 2. 우리는 열린 마음과 열린 영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즉시 진리이신 말씀과 그 영 모두를 접촉한다.
- B. 거룩하게 하는 말씀, 거룩하게 하시는 영, 거룩하게 하는 생명,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모두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있다면, 분열의 모든 요인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이다.
- C.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3절까지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함이 진정한 하나를 산출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삼일 하나님 안에 지켜주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은 “그들이 모두 하나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한다.
1.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곧 삼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
 2.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길은 오직 분열의 모든 요인들을 처리하는 거룩하게 하는 진리로만 된다.
 3. 우리는 삼일 하나님 안에 지켜짐으로써 하나 된다. 그러나 삼일 하나님 밖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즉시 분열된다.
 4. 우리는 매일 아침 주님을 대하고, 살아 있는 말씀을 접촉하며, 신성한 실재를 우리 안에 주입받아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을 접촉할 때 분열의 요인들이 극복된다.
 5. 거룩하게 하는 진리에 의해 우리 안에 있는 분열의 요인들이 죽음에 넘겨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 안으로 이끌리는데, 이것은 거룩하게 함이 우리를 삼일 하나님 안에 지켜주기 때문이다.
 6. 진리의 말씀을 통한 거룩하게 함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가져오는데, 이 몸의 하나가 곧 삼일 하나님의 확대된 하나이다—요 17:21.
- D. 분열에는 네 요인이 있다.

1. 이 요인들 중 첫 번째가 세상적인 것이다. 우리가 어떤 방면에서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방면의 세상적인 것이 분열의 원인이 된다—요 17:14-16, 18, 요일 2:15-17, 5:19.
2. 분열의 또 다른 원인은 야심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주입하시도록 허락해 드릴 때, 이렇게 우리 존재 안에 놓여진 진리가 우리의 야심을 죽인다—비교 사 14:13.
3. 분열의 세 번째 원인은 자만(自慢)이다. 우리는 기꺼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중요하신 분, 곧 우주에서 으뜸이신 분으로 높여야 한다—골 1:18, 고후 4:5, 요삼 9-11.
4. 분열의 네 번째 요인은 의견과 관념이다.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고수하지 말아야 하며, 단순히 주님의 목표, 곧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생명과 모든 것으로 회복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마 16:21-24, 비교 계 3:14.

V.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아버지와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이고, 심지어 온전하게 되어 하나 된다—요 17:21-24.

- A. 우리 자신 안에는 분열의 네 요인이 있다. 우리가 자아 안에 머문다면, 이 네 가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
- B.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 하나 된다—요 17:21-23.
- C.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은 진리인 말씀과 진리의 영이신 그 영에 의해 이루어진다.
 1.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 앞에 나올 때, 겉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접촉하지만, 내적으로는 그 영께서 우리를 접촉하신다. 실재인 이 두 가지, 곧 말씀과 그 영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
 2. 우리가 말씀을 접촉하고 그 영께서 우리를 접촉하실수록, 우리는 더욱더 자신에게서 나오게 된다. 우리는 자아라는 한 거처에서 나와 또 다른 거처인 삼일 하나님께로 이사한다.
 3. 매일 우리는 이렇게 이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아 안에는 세상적인 것과 야심과 자만과 의견 및 관념이 있기 때문이다.
 4.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접촉하고 그 영께서 매일 우리를 접촉하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즉 우리는 우리의 옛 처소인 우리 자신에서 나와 우리의 새 처소인 삼일 하나님 안으로 옮겨져 들어갈 것이다.
 5. 일단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면 거룩하게 되고, 분열의 요인들에서 분별되며, 하나님께 분별될 뿐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분별된다.
 6. 진정한 하나를 가지려면 반드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삼일 하나님 안으로 이사해 들어가야 한다(요 17:17, 21). 그런 후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요 17:23상).
 - a. 이렇게 온전하게 된 하나가 참된 건축이다. 이것이 생명 안의 성장이다—엡 4:16.
 - b. 생명 안에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삼일 하나님 안으로 옮겨져 들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안으로 이사해 들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어느 지방에서든 성도들과 하나 될 수 있다.
- D.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요”—요 17:23.
 1. 온전하게 되어 하나 되는 것은 세상적인 것과 야심과 자만과 의견 및 관념에서 구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2. “내가 그들 안에 있고”—이것은 아들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의미한다.

3.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사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의미한다.
 4. 다시 말하면, 아들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움직이시는 동안, 아버지는 그분 안에 사시고 움직이신다. 이러한 이중의 생활과 움직임에 의해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 하나 되고, 영광 안에서 아버지를 표현한다.
- E. 야심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함축되어 있고, 자만은 22절에 함축되어 있으며, 관념과 의견은 23절에 함축되어 있다.
1. 삼일 하나님 안에는 야심이 없고, 아버지의 영광 안에는 자만이 없으며,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곳에는 의견이 없다.
 2.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야심은 삼켜지고, 자만은 사라지며, 관념과 의견은 죽음을 당한다. 여기에는 사탄이 체계화한 세상에 있는 분열이라는 악이 없고 (요 17:15), 반대로 진정한 하나가 있다.
- F. 진정한 하나는 아버지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허락해 드리고, 아버지의 영광, 곧 그분의 표현 안에 사는 것이다—요 17:22, 24.
1.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삼일 하나님 안으로 이사해 들어가, 아버지의 표현, 곧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 안에 머물러야 한다.
 2. 참된 건축인 하나는 오직 삼일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에만 효력을 발휘한다. 이럴 때 우리는 영광 안에서 아버지를 표현하며 진정한 하나를 체험할 수 있다.

사역의 말씀에서의 발취

거룩하게 됨으로써 우리 자신에게서 나옴

우리가 아버지 안과 영광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없다. 우리 자신 안에서는 자신과만 하나이며, 다른 어떤 사람과도 하나가 아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기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자신에게서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어떤 사람도 우리를 이같이 옮겨줄 수 없다. 이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아버지 안과 아버지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일 뿐 아니라 온전하게 되어 하나 된다.

이렇게 옮겨지는 길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서 아버지 안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남아 있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될 수도 없다. 우리 자신 안에는 세상적인 것과 야심과 자만(自慢)과 의견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존재로부터 뿌리 뽑기란 불가능하다. 여러분은 실지로 세상이 여러분 자신임을 깨닫고 있는가? 야심, 자만, 의견, 관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우리가 자아 안에 머문다면, 이 네 가지 것들로부터 피할 수 없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과 분열이 있다고 말했다(고전 3:3). 이러한 것들은 자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몇몇 특징들이다. 그러나 교회생활은 건축이고, 진정한 건축은 참된 하나이다. 이 참된 하나 안에는 세상적인 것과 야심과 자만과 의견에 대한 여지가 없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서 제거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우리에게서 이것들을 제거할 길이 없다. 타락한 사람들로써 우리는 세상적인 것과 야심과 자만과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자신을 높인다. 또한 그들은 어릴 때부터 야심을 갖는다. 그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세상적인 것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

은 날 때부터 세상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아 있는 한, 세상적인 것과 야심과 자만과 의견에 속하게 된다. 비록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기질로 인해 온화하고 온유할지라도 이것이 야심이나 의견을 갖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야심이 외적으로 표현되어 매우 뚜렷이 드러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야심이 마음 안에 숨겨져 있다. 모든 사람이 야심을 갖고 있다. 야심은 우리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이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신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들이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야 한다. 즉,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자신에게서 나와서 그분 안으로 옮겨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주님 안에 있음으로써 아버지 안에 있게 된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 “그들이 모두 하나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이다. 삼일 하나님 안에 있으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야 한다. 요한복음 17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서 삼일 하나님 안에 머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 우리는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된다.

거룩하게 될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서 삼일 하나님 안으로 옮겨 들어가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에 따르면, 이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한 합당한 관념이다. 우리는 거룩해질수록 더욱더 자신에게서 나와서 삼일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

말씀과 그 영으로 거룩하게 됨

이 거룩하게 됨은 진리인 말씀과 진리의 영이신 그 영에 의해 이루어진다. 요한복음의 이 네 장(章)들에는 말씀과 그 영이 거듭 언급된다. 실지로 말씀과 그 영은 하나이다. 우리 중 매우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되돌아 왔으며 매일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린다. 매일 아침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밖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만지지만 안으로는 그 영께서 우리를 만지신다. 이 둘, 곧 실재인 말씀과 그 영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분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서 삼일 하나님 안으로 이사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체험을 점검해 볼 때, 여러분이 말씀을 만지고 그 영께서 여러분을 만질수록 여러분은 자신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자아라는 한 거처에서 나와 또 다른 거처인 삼일 하나님께로 이사한다. 매일 우리는 이렇게 이사해야 한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틀린 것이다. 왜냐하면 자아 안에는 세상적인 것과 야심과 자만과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의견들을 처리하기를 배움

우리는 이것을 교회생활의 실지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지금은 모든 다른 교회들뿐 아니라 애너하임에 있는 교회도 건축되는 때이다. 교회가 건축되려면 우리는 교회 봉사를 하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인도하는 이들은 성도들의 마음이 상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조심한다. 여러분은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그것은 야심과 자기를 높이는 자아이다. 어떤 이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인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하자.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야심 때문에 이렇게 편치 않다면, 여러분은 즉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영께서 여러분을 만지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그럴 때 여러분은 자신에게서 나와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 것이다. “천사와 귀신들아, 나는 누가 인도자인지 주의하지 않는다. 나는 자신 안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나는 내 자신에게서 나와서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그분 안에 머무를 것이다.”

교회 봉사에서 우리를 가장 손상시키는 요소는 야심이나 자만보다 의견이다. 겉으로는 의견이 자기를 높이는 것같이 추해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온유하고 겸손한 방식으로 나타낼지도 모른다. 그러나 교회 봉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공과는 “나는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교회 봉사를 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의견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는 모릅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지만 어떻게 봉사하는지를 모르고 있음을 보여 준다. 만일 우리가 모두 “나는 모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게 되겠는가!

1928년 상하이에서 일이 시작되었을 때, 우체국장이었던 어떤 형제가 동역자가 되었다. 그는 처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어떤 곳에 초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니 형제님에게 조언을 구했다. 니 형제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다만 ‘나는 모릅니다.’라고 말하기를 배우십시오. 사람들이 질문할 때마다 형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형제는 가장 좋은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우리는 교회 봉사를 하러 올 때, 모두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모릅니다.”라고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 자신에게서 나올 때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자신 안에 머물러 있다면, 항상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에게서 나와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머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로 여길 것이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의견도 없음을 의미한다. 삼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견을 갖지 않게 된다.

주님의 제자들은 자아에서 나와 삼일 하나님 안으로 옮겨 들어간 훌륭한 분이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제자들은 그들 자신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의견이 매우 많았다. 베드로, 마르다, 심지어 마리아도 의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그들의 의견을 잃어버린 것을 본다. 복음서에서는 그들이 자신 안에 있었지만, 사도행전에서 그들은 자아에서 나와 삼일 하나님 안으로 옮겨 들어갔다.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사이에서 큰 이동이 이루어졌다. 사도행전 2장에서 중요한 일이 시작되었지만, 거기에는 그것에 관한 회의나 토론이 없었다. 사람들이 의견을 갖고 있을 때에는 회의나 토론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견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모른다.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봉사하기 위해 모일 때, 모두 의견을 갖지 않기를 배워야 한다. 어떻게 우리의 의견이 없어질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 자신을 교정하거나 우리의 행동을 개선함으로써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서 삼일 하나님 안으로 옮겨 들어감으로써 이루어진다. 이것이 거룩하게 됨에 대한 더 깊은 이해이다. 일단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것과 야심과 자만과 의견으로부터 분별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분별될 뿐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분별된다.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

삼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 안에 있을 때에는 나누어진 다. 하나에 관한 외적인 가르침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지 못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에 대해서 말할수록 더욱더 나누어진다. 고린도 사람들처럼 그들은 여전히 그들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참된 하나 안에 있지 않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거처는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고 그 길은 주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실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길이시고, 아버지는 거처이시다. 믿지 않는 이들은 그들 자신 안에만 머무를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거할 수도 있고 삼일 하나님 안에 거할 수도 있다. 우리는 자신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 안으로 옮겨 들어갈 수 있다. 우리를 위해 거처가 예비 되었고, 선택권은 우리에게 주어졌다. 주님은 아버지의 집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신 후에, 우리를 그곳으로 영접하러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계신 곳에 우리도 있을 수 있다. 주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도 아버지 안에 있게 되기를 갈망하신다. 이제 아버지 안에 우리를 위한 거처가 예비 되었으므로, 우리는 진리로 거룩하게 됨으로써 아버지

안으로 옮겨 들어갈 수 있다. 이 진리는 말씀과 그 영을 다 포함한다. 만일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접하고, 그 영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접촉하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즉, 우리는 우리의 옛 거처인 자신에게서 나와 새로운 거처인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옮겨짐으로써 우리는 세상적인 것과 야심과 자만과 의견을 버리게 된다.

온전하게 되어 하나 됨

요한복음 17장 23절은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요,”라고 말한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 안으로 옮겨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주님 또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생활의 문제이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해 우리 자신 밖으로 나온다.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실 수 있다.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실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 하나 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교회 봉사를 하기 위해 함께 모인다면 하나 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하나 안에서 봉사하려면 우리는 자신 밖으로 나와야 한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 안으로 옮겨 들어감으로써 봉사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서 삼일 하나님 안으로 옮겨 들어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그분은 우리 안에 사심으로써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가 되게 하신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삼일 하나님 안으로 옮겨 들어감으로써 하나를 갖는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온전하게 된 하나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만이 우리는 참된 하나의 실재를 느낀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실수록 그분의 사심이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 되게 한다.

참된 하나는 단지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니다. 참된 하나를 가지려면 우리는 첫째로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서 삼일 하나님 안으로 옮겨 들어가야 하고, 둘째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일 뿐 아니라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된다. 이러한 참된 하나 안에는 세상적인 것이나 야심이나 자만이나 의견이 없고 삼일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만이 있다.

참된 건축

이 온전하게 된 하나가 참된 건축이다. 나는 1954년에 처음으로 건축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마닐라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 위에, 그들 아래에, 그들 옆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후에 나는 체험에 의해 이러한 건축의 관념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움직이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물질로 된 건축물이나 적용되는 것일 뿐,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사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사람인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주님께 실질적인 건축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시기를 구했다. 점차 나는 에베소서 4장으로부터 참된 건축이 생명 안의 합당한 성장임을 보았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정상적으로 자랄 때, 자신에게서 나와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 이것이 우리의 체험이 될 때, 우리는 참된 하나를 갖게 되고 온전하게 되어 하나 된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 하나 될 때, 건축에는 문제가 없다.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성도들과 하나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문제를 갖게 될 것이다.

참된 하나는 단순히 관계를 맺거나 조화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생명 안의 성장이다. 생명 안의 성장은 우리가 자신에게서 나와 삼일 하나님 안으로 옮겨 들어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안으로 옮겨 들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우리는 어떤 지방에 있는 성도들과도 하나가 될 수 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문제들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환경이나 성도들을 비난하지 말라. 그보다 여러분은 자신에게서 나와 삼일 하나님 안으로 옮겨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도록 허락해 드리지 못한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라.(진리 메시지, 91-100쪽)